

잘못된 역사관의 과학적 재정립

글_ 정용승 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kccar1@kornet.net

훌륭한 역사가 있으면 현재가 있고, 현재를 잘 유지하면 미래도 기약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과학기술로 그 민족의 역사와 문화의 수준 및 질을 저울질하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과학기술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와 국력의 척도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

역사와 그 평가는 어디에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우리가 쓴 역사관은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의 역사의식과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중국인들은 한반도가 독립국가가 아닌 자기네 위성국가로 본다. 한나라의 무제가 한반도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군을 설치하였으므로 중국의 부속 체제이며 속국이라는 주장이다.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역사의식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은 미국의 과학문화 때문에 일본이 패망했고 한반도를 잃게 되었다고 한탄한다.

우리 민족에게 가장 슬픈 것 3가지를 꼽으라면 첫째, 이성계 장군의 위화도 회군과 국경의 남하, 둘째, 1909년의 일본과 청나라의 간도협약과 우리의 간도 포기, 셋째, 한일합방의 결과로 외세에 의한 국토 분단과 민족상잔을 들 수 있다. 위화도 회군은 압록강을 국경으로 설정되게 하여 우리 국토를 비좁게 만들었다. 과거 중국인들은 '산하이관(山海關)'에 시작되는 만리장성 북녘의 민족과 국가들을 모두 오랑캐로 취급하였다. 만리장성이 북쪽 국경이었던 것이다.

일본은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고 백두산과 두만강 북녘의 간도를 청나라에 주었다. 간도와 연해주에는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베링 해협을 건너 러시아까지 갔었다. 러시아는 부

동향을 얻기 위해 청나라로부터 우리의 옛 땅 연해주를 얻었다.

스탈린은 조선족의 독립운동을 우려, 2차대전 후 한인들을 카자흐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중국도 미래의 민족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조선족을 만주에서 쓰촨성(四川省) 등 서부지역으로 강제 이동시켰었다. 현재 중국이 '동북공정' 이란 사업을 펼치는 이유는 한인들의 만주에 대한 회고를 멀리하기 위해서이다.

역사를 배우는 목적은 좋은 것은 오래 보전하고 과거의 잘못을 파악하여 깨우치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교육은 대학입시와 수능시험 때문에 매우 부실해져 버렸다. 잃어버린 영토, 만주와 간도 및 연해주를 생각하며 다시는 실수가 없도록 과학적인 기초 아래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구려, 발해, 고려의 북쪽 역사를 우리 것으로 잘 보전해야 한다. 과거를 반성도 못하는 일본인들이 끈질기게 탐내는 독도 수호도 확고히 해야 한다. 일본의 임진왜란 7년 전쟁의 보상과 문화적 훼손을 마땅히 청구해야 하며, 1905년 을사보호조약 이후 일본이 간도를 중국에 이양한 것과 수탈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의 미흡한 역사관을 과학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정립할 때이다. ㉔

